

# 『捷解新語』卷十의 文面解讀(Ⅱ)

林 昌 奎\*

(e-mail : climsw@hanmail.net)

---

## 目 次

---

### I. 序論

### II. 本論

1. 「候」에 대하여(1)
2. 「間」에 대하여
3. 「候」에 대하여(2)
4. 「參を以て」와 「其の儀無く候」에 대하여
5. 「御懇札忝なく拝見」등에 대하여
6. 「罷里渡里」에 대하여
7. 「然るべきように」에 대하여

### III. 結論

---

## I. 序論

司譯院 倭學書の 白眉라고 할 수 있는 『捷解新語』(全十卷)는 그 자료적 우수성과 通時的 자료로서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卷一부터 卷九까지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候文体書簡文인 卷十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口語体라고 하는 자료적 성격으로 인해 통일성을 갖지 않는 卷十의 경우, 李太永(1997)에서 한국어 부분이 해석된 것을 제외하면, 그 어휘적 성격이나 문장구조에 대하여 아직까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捷解新語』 한국어 부분의 유일한 해설서인 李太永(1997)에서

---

\* 濟州漢學大學 觀光日本語科, 教授, 日本語學

는 일본어 본문이 고려되지 않은 채, 對譯 한글만을 주요 고찰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誤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李太永(1997)의 誤謬에 대한 수정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동안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候文体書簡文인 卷十의 文面解讀, 즉 卷十에 대한 현대일본어와 국어번역을 原文인 일본어 본문과 문맥, 그리고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세밀하고 치밀하게 解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本論

### 1. 「候」에 대하여(1)

다음 용례 1), 2)의 편지는 조선 측에서 茶禮날짜를 정하여 알린 것<sup>1)</sup>에 대한 일본 측의 답신 내용이다.

용례 1)의 「明後日茶禮成され候由、相心得申し候」에 대하여 李太永(1997)에서는 文末의 「候」를 改修本の 한글 対訳을 그대로 현대어로 옮겨 「모레 연향은 할 줄을 알았으며」로 해석하고 있다.

#### 1) <原><sup>2)</sup>貴札依つて、明後日 茶禮<sup>3)</sup>成され候由、相心得申し候。

5裏2-5裏6<sup>4)</sup>

依貴札 明後日 茶禮 被成候由 相心得申候<sup>5)</sup>

1) 「態と申し入れ候。明後日茶禮仕り候様に相定め申し候間、御僉管衆へ御心得成され候て下さる可く候。將又、茶禮の翌日より五日までは、早飯にて御座候條、是又御心得成さる可く候。恐恐謹んで申。4裏1-5裏1 (改めてお手紙を差し上げます。明後日茶禮を行うように決定いたしましたので、役人の皆様へそのようにご了解くださるよう(お伝え) 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茶禮の翌日より五日までは早飯でございますので、こちらもお含みおきください。恐々謹んで申しあげます。/일부러(특별히) 아됩니다. 모레 茶禮를 하도록 결정했으므로 여러분들께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례 이튿 날부터 닷새날까지는 早飯하올 것이니 이도 알아 두십시오. 황송하게도 삼가 아뢰옵니다.: 필자에 의함)」

2) <原>은 原刊本, <改>는 改修本, <重>은 重刊本, (李)는 李太永(1997)를 나타냄. 本稿의 表記는 讀者의 便宜를 고려하여 京都大学(1973)의 『三本對照 捷解新語』에 의함. 이하 같음.

3) 茶禮: 日本 使臣들에게 茶를 대접하는 儀式.

4) 文末에 표기한 숫자 등은 순서대로 帳、表·裏、文節를 나타냄. 이하 같음.

5) 原刊本 일본어문장에 대응하는 對譯文으로 주로 일본식 漢文으로 표기되어 있다.

<改> 依貴札 明後日 茶禮 被成候由、相心得申候。

貴札依 明後日茶禮 成被候由、相心得申候。

貴札대로 모뢰 宴享은 ㅎ을줄을 아라스오며

<重> 貴札拜見。茶禮、明後日ニ、相極リ候段、仰越被、委細、致承知候。

貴札拜見 茶禮明後日 相極候段 仰越被 委細 承知致候

貴札을 拜見ㅎ오니 茶禮 모뢰 정ㅎ을줄을 기별ㅎ시니 ㄷ세히 아랄습  
ㄴ이다

(李) 편지대로 모레 연향은 할 줄을 알았으며

우선 편지의 첫 부분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貴札依つて(きさつよつて)<sup>6)</sup>」의 「貴札(きさつ)」는 「Qisat.キサツ(貴札)書狀。それを書く人を尊敬して言う語。」<sup>7)</sup> 「他人を敬つてその手紙をいう語」<sup>8)</sup> 「他人の手紙の敬称。貴翰とも。」<sup>9)</sup> 등의 뜻이므로 「貴札」는 현대어로는 「ご書面」과 같이 해석되어야 하며, 「明後日茶禮成され候由(みょうごにちされいなされそうろうよし)」의 「由(よし)」는 「伝え聞いた事柄であることを示すことば。…とのこと。ということ。」<sup>10)</sup> 등의 의미로 파악되므로 「明後日茶禮成され候由」는 현대어로 「明後日茶禮をなさるとのこと」와 같이 풀이할 수 있겠다.

이어지는 문장 「相心得申し候(あいこころえもしそうろう)」의 「相(あい)」에 대하여 『日葡辞書』에는 「一種の助辞でもあつて、時にそれ自身は何の意味をも示さないで、動詞を合してそれに一種の力を添え、あるいは、優雅さを加える場合がある。たとえば、Aicamaite(相構ひて)、Ai cocoroyete(相心得て)など。」로 기술하고 『時代別国語大辞典』에는 接頭辞로써 「④動詞などに冠して、その動詞の意味する動作を強調し、また、書状などの改まった言い方として使われて、丁寧の意を加える」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相心得申し候」는 현대일본어로 「承知いたしました。」와 같이 解釈되어야 한다. 따라서 「貴札依つて、明後日茶禮成され候由、相心得申し候」는 「ご書面のとおり、明後日茶禮をなさるとのこと、承知いたしました。(書翰대로

6) 괄호 안 히라가나(讀み仮名) 표기는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7) 『日葡辞書』

8) 『日本国語大辞典』

9) 『古語大辞典』 등. 「よつて」의 상세한 의미 등은 『日本大文典』 p.523-525 참조.

10)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모래 茶禮를 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와 같이 解釋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原刊本「明後日茶禮成され候由、相心得申し候」에 대하여 李太永(1997)에서는 改修本の 한글번역을 그대로 현대어로 옮겨「모래 연향은 할 줄을 알았으며」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文末의「候」를 連結形語尾로 파악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일본어「候」는 平安時代에서 鎌倉時代 초기에 성립되어 일반화 된 어휘로서, 주로 書簡文에 사용되었으며, 用言의 連用形에 접속되어「～(で) ございます」「～ます」의 의미를 나타내는「丁寧形語尾」또는「謙讓形語尾」로 주로 사용되었다.<sup>11)</sup> 또한 전·후 문장의 흐름이나 重刊本の 改修를 고려하더라도「候」를「丁寧形語尾」로 파악하여「알았습니다」로 하는 것이 일본어 原文에 충실한 解釋이라 할 수 있겠다.

덧붙여 용례 1)의 原刊本「明後日茶禮成され候由、相心得申し候」에 대응하는 対訳은 일본식 漢文인「明後日 茶禮 被成候由 相心得申候」로 번역되어 있으며, 原刊本「明後日茶禮成され候由、相心得申し候」에 대응하는 重刊本은「貴札 拜見。茶禮、明後日ニ、相極り候段、仰越被、委細、致承知候(きさつはいけん、さらい、みょうごにちに、あいきわまりそうろうだん、おおせこされ、いさい、しょうちいたしそうろう)」와 같이 일본어 표현 자체가 改修되어 있다. 대응하는 국어번역에서는「候」를 종결형어미로 파악하여「貴札을 拜見호오니 茶禮 모되 정흔 줄을 기별호시니 즈세히 아랄습느이다」로 되어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이 일본어 문장과 대역 한국어 문장 구조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현대어 해석을 무엇에 근거하여 解釋하는 것이 타당할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어 原文과 대역 한국어 문장 구조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먼저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이 항상 완전히 일치할 수 없으므로 대역 한국어가 일본어 표현과는 좀 차이를 보이거나 한국어 문법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혹은 改修本の 편찬 과정에서 일본어를 세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단순한 誤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前者의 경우 현대 한국어로서 일본어 표현의 직역이 문법적이지 않다면 한국어의 문법적 표현으로 의역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후자의 경우는 原刊本 일본어의 표현에 근거하여 한국어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捷解新語』는 일본어 교재로서 제작된 자료적 특성이 있으므로, 일본어가 중심문장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어 번역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일본어보다 그 비중이 낮았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례 1)의 경우 原刊本과 改修本の 일본어에 근거하여「候」를「終結形語尾」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11) 『日本国語大辞典』, 『時代別国語大辞典』, 『日葡辞書』, 『古語大辞典』 등

이상의 검토 결과와 문장 전후의 문맥, 原文인 일본어 등을 고려하여 용례 1)을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1) ご書面のとおり、明後日茶礼をなさるとのこと承知いたしました。

1-2) 書翰대로 모레 茶禮를 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 2. 「間」에 대하여

다음 2)의 용례는 1)의 용례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일본 측이 조선 측에게 「茶禮가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2)<原>御僉官中へ御傳筆申し聞かせ候。茶禮の儀、延引に及び申し候  
間、明後日は彌々仕る様に頼み上げ奉り候。5裏7-6表6

御僉官中예 御傳筆申間候茶禮之儀 及延引申候間 明後日란彌仕候様  
奉頼上候

<改>御僉官中 御傳筆申間候。茶禮之儀 及延引申候間、 明後日彌  
仕候様 奉頼上候。

御僉官中御傳筆申間候。茶禮之儀、延引及申候間、明後日彌仕様  
頼上奉候。

僉管들의게 글월로 알게 ㅎ열스오니 宴享절치 천연ㅎ올가 너지오니  
모되란 브디 ㅎ올줄을 미더느이다

<重>如何様明日、 緩々、可得貴意候。

如何様明日緩緩 貴意得可候

아마 니일 풍용히 말슴ㅎ올가 ㅎ느이다

(李) 첨관들에게 글월로 알게 하였으니 연향 절차 늦어질까 여기니  
모레는 부디 할 것으로 믿습니다.

「御僉官中へ御傳筆申し聞かせ候」의 「御傳筆」는 「Denpit.덴피쯔 (伝筆) Fudeuo tçutayuru. (筆を伝ゆる) すなわち、 Xoni cotozzte suru. (書に言伝てする) 手紙による伝言。例、Denpituo möxi soro. (伝筆を申し候) 文書語。」<sup>12)</sup>

12) 『日葡辞書』

「手紙で申し送ること」<sup>13)</sup>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申し聞かせ」는 「他人に言って聞かせる」 혹은 「「言い聞かせる」の「謙讓語」」<sup>14)</sup> 등의 뜻이 있으므로 「御僉官中へ御傳筆申し聞かせ候」는 「僉官たちに書面にてお知らせ申しました。(僉官들에게는 편지로 알렸습니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2)의 용례 중의 「茶禮の儀、延引に及び申し候間(されいのぎ、えんいんにおよびもうしそろうあいだ)」에 대하여 李太永(1997)에서는 「연향 절차 늦어질까 여기니」로 번역하고 있다. 原刊本 「茶禮の儀、延引に及び申し候間」의 対訳은 일본어 본문 그대로를 일본식 漢文 「茶禮之儀 及延引申候間」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改修本에서는 「宴享절차 천연흐올가 너기오니」로 번역되어 있다. 重刊本에서는 2)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표현 자체를 달리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茶禮の儀、延引に及び申し候間」의 「間(あいだ)」인데 李太永(1997)에서는 일본어 「間(あいだ)」를 고려하지 않고 개수본의 한글번역을 현대국어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어 「間」는 「~よって、~が故に、~ので」등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接續助詞로서의 기능<sup>15)</sup>이 있으므로 용례 2)의 「茶禮の儀、延引に及び申し候間」의 「間」는 接續助詞의 기능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일본어 「間(あいだ)」는 文章体에서는 「~したので」의 뜻을 나타내므로<sup>16)</sup> 「茶禮の儀、延引に及び申し候間」는 「茶禮の儀は予定より遅れておりますので(茶禮는 예정보다 늦어졌으니)」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原文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용례 2)의 마지막 부분의 「明後日は彌々仕る様に(みょうごにちはいよいよつかまつるように)」의 「彌々(いよいよ)」는 「確かに、ほんとに、きっと、間違いなく、確実に」<sup>17)</sup>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맥상으로도 「반드시, 틀림없이, 꼭」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리라 본다. 따라서 「明後日は彌々仕る様に」는 「明後日は間違いなく行いますように(모래는 반드시 행하도록)」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3) 『日本国語大辞典』 등.

14) 『日葡辞書』 『日本国語大辞典』 등.

15) 『日葡辞書』 『時代別国語大辞典』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16) 『日葡辞書』 『時代別国語大辞典』 『日本国語大辞典』 등.

17) 『時代別国語大辞典』 『日本国語大辞典』 등.

2-1) 僉官たちに書面にてお知らせ申しました。茶礼の儀は予定より遅れてお  
りますので、明後日は間違いなく行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2-2) 여러 官吏들에게는 편지로 알렸습니다. 茶禮는 예정보다 늦어 졌  
으니 모레는 반드시 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3. 「候」에 대하여(2)

다음 용례 3)과 4)는 「茶禮宴이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의 書翰」으로  
조선 측이 일본 측에 보낸 것이다. 3)의 용례 「昨日者茶礼相濟み、目出たく存ず  
る事に候(さくじつはされいあいすみ、めでたくぞんずることにそうろう)」중의 文末의 「候」  
도 용례 1)과 같이 「謙讓形語尾」로 해석되어야 한다.

3)<原> 昨日者茶禮相濟み、目出たく存ずる事に候。6裏1-6裏3

昨日者 茶禮相濟 目出度存事候

<改> 昨日者 茶禮相濟 目出度存事候。

昨日者 茶禮相濟 目出度存事候

어제는 茶禮를 못즈오니 아름답스와

<重> 昨日者 茶禮相濟 目出度奉存候。

昨日者 茶禮相濟 目出度存奉候

어제는 茶禮를 못즈오니 아름다이 너지옵니

(李) 어제는 다례를 마치니 기뻐

위 용례는 1)에서와 마찬가지로 改修本の 「候」에 대한 한국어 번역이 중  
결어미로 나타나지 않고 「아름답스

와」라는 연결어미로 나타나는 용례이다.  
李太永(1997)에서는 日本語文과 重刊本은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改修  
本の 한글번역만을 참고하여 「目出度存事候」를 현대국어로 「기뻐」로 번역  
하고 있다.

한편 原刊本에 대응하는 改修本은 「昨日者 茶禮相濟 目出度存事候」로 원간  
본과 표기를 달리 하고 있을 뿐 동일한데 비해 重刊本에서는 「昨日者 茶禮相  
濟 目出度奉存候」와 같이 「奉(たてまつる)」를 넣어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

어 표현을 보다 謙虛히 하고 있다. 重刊本の 대응하는 한글 번역도 文末의 「候」를 「謙讓形語尾」로 번역하여 「어제는 茶禮를 맡즈오니 아름답이 너기 읍니」로 하고 있어 일본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또한 용례 3)의 「昨日者茶禮相濟み、目出たく存ずる事に候」는 「候」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한다면 「謙讓形語尾」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어로는 「昨日は茶礼が無事に終り、慶ばしく存じます。(어제는 茶禮를 무사히 마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와 같이 번역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해석이 일본어의 표현과 다를 때,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어 표현에 정확히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인데, 『捷解新語』가 당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교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捷解新語』 卷一부터 卷九까지는 한국어적으로 다소 어색하더라도 일본어의 직역에 가까운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한국어 해석 과정에서 일본어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한국어 해석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卷十의 개수분의 「候」에 한해서 이러한 표현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경우, 原刊本の 일본어 표현을 중심으로 해독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捷解新語』의 底本은 역시 원간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改修本과 重刊本の 경우 그 편찬 시기가 그다지 멀지 않으나 중간본에서 개수분의 그러한 표현이 대부분 수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간본과 중간본의 한국어 부분을 참고하지 않고 개수본의 한국어 만에 의존하여 현대어로 解讀하는 것은 『捷解新語』의 원간본과 중간본의 개수 의도를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이상에 근거에 의거하여 용례 3)을 다음과 같이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겠다.

3-1) 昨日は茶礼が無事に終り、慶ばしく存じます。

3-2) 어제는 茶禮를 무사히 마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4. 「參を以て」와 「其の儀無く候」에 대하여

다음 용례 4)는 3)의 용례에 이어지는 편지 내용으로, 조선 측이 보낸 편지인데 조선 측 관리가 몸이 좋지 않아 직접 만나서 인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해의 편지 내용이다.



4) <原> 尤も、參を以つて御禮申入る可き候えども、今朝より氣相惡しく候故、其の儀無く候。6裏4-7表1

尤 以參 御禮可申入候得共 自今朝 氣相惡敷候故無其儀候

<改> 尤 以參 御禮可申入候得共、自今朝 氣相惡敷候故、無其儀候。

尤 參以 御禮申入可候得共、今朝自 氣相惡敷候故、其儀無候。

만당이 가와 인스호오런마는 오늘 아츨부터 기운이 정치 못헌

고로 즈서히 적지 못흐는이다

<重> 以參 御祝詞可申入候得共、自今朝 氣相惡敷候故、無其儀候。

參以 御祝詞申入可候得共、今朝自 氣相惡敷候故、其儀無候。

가와서 치하호오런마는 오늘 아츨부터기운이 조치 못흐옵기에

즈세히 적지 못흐옵니

(李) 마땅히 가서 인사하련마는 오늘 아침부터 기운이 바르지 못한  
이유로 자세히 적지 못합니다.

첫 부분인 「尤も、參を以つて(もつとも、さんをもって)」의 「參を以て」는 『捷解新語』와 거의 동일한 시대(1561~1634)의 문헌인 로드리게스의 『日本大文典』에 의하면 「參を以て」는 「行くこと、又、来ること」를 의미하는 「謙語動詞」<sup>18)</sup>로서 정의하고 있는 등, 현대어로는 「お伺いして(찾아뵙고)」와 같이 번역할 수 있겠다. 따라서 「尤も、參を以つて御禮申入る可き候えども」는 「本来ならば、お伺いしてご挨拶をいたすべきところですが」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李太永(1997)에서는 「參を以つて(만당이 가와)」를 겸양의 어미를 생략하고 「마땅히 가서」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개수본의 겸양어미 「오」를 해석하지 않은 오류로 생각된다.

또한 「今朝より氣相惡しく候故、其の儀無く候(こんちょうよりきあいあしくしてそのぎなくそうろう)」의 「氣相惡しく候故」는 현대일본어로는 「体調が優れていないので」 혹은 문맥을 고려하여 「体調が優れず(몸이 좋지 않아서)」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 「其の儀無く候」를 직역하면 「そのようにできません」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李太永(1997)에서는 「其の儀無く候」를 改修本の 한글번역 「즈서히 적지못흐는이다」를 그대로 현대어로 옮겨 「자세히 적지 못합니다.」로 해석하

18) p.593-594

고 있는데 일본어 본문과는 차이를 보이는 解釋이라 할 수 있겠다.

용례 4)의 「氣相惡しく候故、其の儀無く候」의 문맥을 보면 「茶礼が無事に終り、目出度く存じ、本来ならば、直接お伺いしてご挨拶をするべきところだが、今朝より体調がすぐれず、そのようにできない。」 즉, 「茶禮를 무사히 마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원래대로라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례 4)의 「氣相惡しく候故、其の儀無く候」는 「体調が優れず、失礼いたしております(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 의거하여 용례 4)는 다음과 같이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겠다.

4-1) 本来ならば、お伺いしてご挨拶をいたすべきところですが、今朝より体調がすぐれず、失礼しております。

4-2) 마땅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5. 「御懇札忝なく拜見」 등에 대하여

다음 書簡文은 조선 측이 보낸 편지(茶禮宴이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의 書翰)에 대한 일본 측의 답장이다.

5)<原> 御懇札忝なく拜見、來示の如く、昨日の茶礼、貴様の御取持に、無事に相濟み、一入大慶に存じ奉り候。然れば御氣色の由、隨分御養生成さる可く候。7表2-7裏4

御悃札辱拜見、如來示、昨日之茶禮、貴様之御取持、無事相濟、一入大慶奉存候。然者、御氣色之由、隨分御養生可被成候。

<改> 御悃札辱拜見、來示如、昨日之茶礼、貴様之御取持、無事相濟、一入大慶存奉候。然者、御氣色之由、隨分御養生成被可候。

御悃札辱拜見、如來示、昨日之茶禮、貴様之御取持、無事相濟、一入大慶奉存候。然者、御氣色之由、隨分御養生可被成候。

극진히신 편지감격히오매 절히고보와스오며 기별히심길치 어제

茶禮 게서쥬션호시기의 無事히 못즈오니 마장 긴비너리옵니  
그러나 병드르시다호니 브디 도리호쇼셔

<重> 御憇札辱拝見、如來示、昨日之茶禮、貴様御取持ニ付、無事ニ相濟、大慶奉存候。然者、些與御病之由、隨分御養生可被成候。  
御憇札辱拝見、如來示、昨日之茶禮、貴様之御取持、無事相濟、大慶奉存候。然者、些与御痛色之由、隨分御養生可被成候。  
극진호신편지감격호오매 拝見호열스오며 기별호심마치 어젠茶禮 게서쥬션호시기에 無事히못즈오니 긴비너기늬이다 그러나 저기 알호시다호오니 브디 도리호쇼셔

(李) 극진하신 편지 감격하매 절하고 보았으며 기별하심과 같이  
어제 다례 그대가 주선하시기에 무사히 마치니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병이 들으셨다고 하니 부디 조리하소서.

「御懇札忝なく拝見(ごこんさつかたじけなくはいけん)」의 「懇札(こんさつ)」는 「Consat. コンサツ(懇札) Nengorono fuda.(懇ろの札)親切な、または、好意のこもった手紙」<sup>19)</sup> 「心をこめて書かれた手紙。親切な書状。多く「御懇札」の形で用いられる。」<sup>20)</sup>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忝(辱)い」는 「Catajiqeni. カタジケナイ(忝い・辱い)お礼の言葉、あるいは、ある事に対して謝意を表する言葉」<sup>21)</sup> 혹은 「目上の人から受けた行為を分に過ぎたものであるとして、もったいなく思い、感謝にたえない気持である」 「高貴な人などの、過分な厚志恩恵を感謝する気持を表わす。ありがたくうれしい。」<sup>22)</sup> 등의 의미가 있으므로, 「御懇札忝なく拝見」은 「ご懇切なお手紙ありがたく拝見いたしました。(극진하신 편지 감격히 받아 보았습니다.)」와 같이 풀이할 수 있겠다. 한편 李太永(1997)에서는 일본어 원문을 고려하지 않은 채, 「御懇札忝なく拝見」을 改修本の 한글번역 「극진호신 편지감격호오매 절하고 보와스오며」를 그대로 현대어로 옮겨 「극진하신 편지 감격하매 절하고 보았으며」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은 「來示の如く、昨日の茶禮、貴様の御取持に無事に相濟み、一入大慶に

19) 『日葡辞書』

20) 『日本国語大辞典』 『時代別国語大辞典』 등.

21) 『日葡辞書』

22) 『時代別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存じ奉り候(らいしのごとく、さくじつのされい、きさまのおとりもちに、ぶじにあいすみ、ひとしうたいけいに、ぞんじたてまつりそうろう)」에 대한 검토이다.

「來示」는 「やってくるて示すこと。また、書き手を敬ってその書状の内容をいう語。來論」<sup>23)</sup>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來示の如く」는 「ご書面にありますように(편지에 쓰여진 말씀대로)」와 같이 풀이할 수 있겠다. 「貴様(きさま)」에 대하여 『日本国語大辞典』의 「補注」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貴様」は中世末、近世初期頃発生した対称代名詞で、もっぱら武家の書簡でかなりの敬意をもって用いられた。<sup>24)</sup> 즉, 原刊本 당시의 의미로는 「あなた様」와 같이 꽤 경의도가 높았다고 파악할 수 있겠다. 「取持(とりもち)」는 당시에 도 현대어와 類似的한 의미 「仲をとりもつこと。仲立ち。仲人」<sup>25)</sup>로 사용되었으며, 「一入大慶に存じ奉り候(ひとしうたいけいに、ぞんじたてまつりそうろう)」의 「一入」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ひときわ。いっそう」<sup>26)</sup>등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來示の如く、昨日の茶礼、貴様の御取持に無事に相濟み、一入大慶に存じ奉り候」는 현대어로 「ご書面にありますように昨日の茶礼はあなた様のお世話で無事に終り、まことに大慶に存じ上げます(편지에 쓰여진 바와 같이 어제 茶禮는 그대 덕분에 무사히 마치니 대단히 기쁘게 여깁니다.)」와 같이 풀이할 수 있다.

다음은 용례 5)의 마지막 문장 「然れば御氣色の由、隨分御養生成さる可く候(しかればおきしよくのよし、ずいぶんごようじょうなさるべくそうろう)」에 대한 검토이다. 선행하는 문장이 있고 5)의 용례와 같이 마무리 문장에 사용된 「然れば」는 「さて。ところで。」<sup>27)</sup>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御氣色の由」의 「由(よし)」는 「伝え聞いた事柄であることを示すことば。…とのこと。…ということ。」<sup>28)</sup>의 의미로 파악되어 「然れば御氣色の由」는 현대어로 「ところで、ご病氣とのこと」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隨分御養生成さる可く候」의 「隨分(ずいぶん)」은 부사적 용법으로 「よく、念を入れて、極力、はなはだ、非常に」<sup>29)</sup>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養生(ようじょ

23) 『日本国語大辞典』

24) 「貴様(きさま)」가 구어체로 사용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점차 「敬意」가 떨어져 文化, 文政期(1804-1830)에는 완전히 대등한 관계의 상대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참조.

25) 『日葡辞書』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26)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27) 『時代別国語大辞典』 『日本国語大辞典』 등.

28)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29) 『日葡辞書』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う)」는 「生命を養うこと。健康を維持し、その増進に努めること。摂生。病氣の手当てをすること。保養。」<sup>30)</sup>의 의미이므로 「隨分御養生成さる可く候」는 현대어로는 「念を入れてお大事にしてください」와 같이 풀이할 수 있겠다.

李太永(1997)에서는 「隨分御養生成さる可く候」 개수본의 한글대역 「부디 요리하소서」을 그대로 현대어 표기로 하여 「부디 조리하소서」로 옮기고 있는데 부자연스럽다. 이 상에서 서술한 바를 근거로 일본어 原文을 반영한 현대 일본어와 국어는 다음과 같다.

5-1) ご懇切なお手紙ありがたく拝見いたしました。ご書面にありますように昨日の茶礼はあなた様のお世話で無事に終り、まことに大慶に存じ上げます。ところで、ご病氣とのことですが、くれぐれもお大事になさってください。

5-2) 극진하신 편지 감격히 받아 보았습니다. 편지에 쓰여 진 바와 같이 어제 茶禮는 그대 덕분에 무사히 마치니 대단히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다니 부디 몸조리 잘 하십시오.

### 6. 「罷里渡里」에 대하여

다음 용례 6), 7)은 「일본 측이 무사히 부산에 도착한 것에 대한 自祝의 뜻으로 目錄으로서 조선 측에 선물을 보내니 받아 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서간문이다.

6) <原>一筆啓達せしめ候。是式些少に御座候ととも、今度罷里渡里の祝までに、目錄を以つて進覽致し候。7裏5-8裏5

一筆令啓達候 是式些少御座候得共 今度罷渡之祝迄 以目錄 致進覽候

<改>一筆令啓達候。是式些少御座候得共、今度罷渡之祝迄、以目錄致進覽候。

一筆啓達令候。是式些少御座候得共、今度 罷渡之祝迄、目錄以進覽致候。

글월을 알외옵느이다 이만 거시 비록 些少호으나 이번 건너오신 덕담으로 目錄으로써 보시게 보내오니

30)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重>一筆啓達。是式些少御座候へ共、今度 罷渡候祝儀之迄、以目錄  
致進覽候。

一筆啓達。是式些少御座候得共、今度 罷渡候祝儀之驗迄、目錄以  
進覽致候。

흔 글월을 알의늑이다 이는 些少호으나 이번 건너오온 덕담으로  
目錄으로써 보시게 보내오니

(李) 글월을 아웁니다. 이것이 비록 사소하나 이번 건너오신 덕담으  
로 목록으로써 보시게 보내니

「一筆啓達せしめ候(いっぴつけいたつせしめそうろう)」는 「一筆申し上げます」 혹은 당시의 서간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一筆啓上いたします」와 같이 파악할 수 있으며 「是式些少に御座候ゑとも(これしきしゃしょうにごさうらえども)」의 「是式」는 「これぐらいの事」 혹은 「(しき)は接尾語、事柄の性質、内容、程度が問題とするに足りないほどであること。たかがこれほどの事。これぐらいのこと。」<sup>31)</sup> 등의 사전적 정의가 있으며 「些少(しゃしょう)」는 「数量や程度がごくわずかであること。わずかなこと。少ないこと。」<sup>32)</sup> 등의 뜻에 해당되므로 「是式些少に御座候ゑとも」는 「これは僅かではございますが」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은 「今度罷里渡里の祝までに(こんどまかりわたりのいわいまでに)」에 대한 검토이다. 李太永(1997)에서는 위의 용례 6)의 「今度罷里渡里の祝までに」를 改修本の 국어번역과 같이 「건너오신 덕담으로」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측 스스로가 자신들을 높이는 표현을 하고 있어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또한 일본어 「罷渡(まかりわたる)」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오직 改修本の 국어번역을 현대어로 바꾼 단순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사 「罷渡(まかりわたる)」는 「渡るの謙讓語。こちらからあちらに行く。行き移る。」<sup>33)</sup>를 의미한다. 따라서 「今度罷里渡里の祝までに」는 「今回無事に渡航できた祝までに(이번에 무사히 건너온 자축의 뜻으로)」와 같이 해석된다.

「目錄を以つて進覽致し候(もくろくをもってしんらんいたしそうろう)」에 대하여 李太永(1997)에서는 개수본의 「目錄으로써 보시게 보내오니」를 현대어로 단순히 바꾸어 「목록으로써 보시게 보내니」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본어 원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6)의 용례 「目錄を以つて進覽<sup>34)</sup>致し候」

31) 『日葡辞書』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32) 『日本国語大辞典』 『時代別国語大辞典』 등.

33) 『日本国語大辞典』 『古語大辞典』 등.

에서 알 수 있듯이 「候」를 終結形 語尾 파악하여 「目錄をもって進上いたします」와 같이 해석되어야 된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서술에 근거하여 용례 6)을 原文과 前, 後 文脈을 고려하여 현대어로 해독하면 다음과 같다.

6-1) 一筆啓上致します。これは僅かではございますが、今回無事に渡航できた祝  
までに目錄をもって進上いたします。

6-2) 한 글월 올리웁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디다만 이번에 무사히  
건너온 자축의 뜻으로 목록으로써 올리겠습디다.

### 7. 「然るべきように」에 대하여

다음 용례 7)은 용례 6)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李太永(1997)에서는 다음 용례 중의 「東萊釜山浦<sub>も</sub>然る可き様に仰せ上げられ候て下さる可く候」를 개수본의 對譯 「東萊 釜山浦에도 도홀대로 슬와 주소셔」을 그대로 현대어로 「동래 부산포에도 좋은 대로 아뢰어 주소셔」로 옮기고 있는데 현대어 해석으로는 부자연스럽다.

7) <原> 御笑留に於いては、忝く可く候。東萊釜山浦<sub>も</sub>然る可き様に  
仰せ上げられ候て下さる可く候。8表6-8裏5

於御笑留者 可辱候 東萊釜山浦에도 可然樣 被仰上候而 可被下候

<改> 於御笑留者 可辱候。東萊釜山浦 可然樣、被仰上候而 可被下候。

御笑留於者 辱可候。東萊釜山浦 然可樣、仰上被候而 下被可候。

웃고 머므르시면 감격호을가 호느이다 東萊 釜山浦에도 도홀대로  
슬와 주소셔

<重> 於御笑留者 可辱候。東萊釜山浦へ茂 可然樣 被仰上 可被下候。

御笑留於者 辱可候。東萊釜山浦 然可樣、仰上被 下被可候。

운고 머므르시면 감격호을가 호느이다 東萊 釜山浦에도 도홀대로  
슬와 주소셔

34) 「何か物を捧げること、あるいは、差しあげること。受け取る人を尊敬して言う。文書語。」  
『日葡辞書』 등.

(李) 받아주시면 감격할까 합니다. 동래 부산포에도 좋은 대로 아뢰어 주소서.

「御笑留に於いては、忝く可く候(ごしょうりゆう)においては、かたじけなくそうろう)」는 「お笑納いただけましたらありがたく存じます」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東萊釜山浦も然る可き様に仰せ上げられ候て下さる可く候」에 있어서 「然るべきように」는 「ふさわしく、上手に、ちょうどよい」 등의 뜻에 해당되므로 「東萊様、釜山浦様にもしかるべく申しあげてください。(東萊(府使)님과 釜山浦(僉使)님께도 잘 말씀드리 주십시오)」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이상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용례 7)을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7-1) お笑納いただけましたらありがたく存じます。東萊様、釜山浦様にもしかるべく申しあげてください。

7-2)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東萊(府使)님과 釜山浦(僉使)님께도 잘 말씀드리 주십시오.

### Ⅲ. 結 論

이상에서는 그동안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捷解新語』 卷十 중, 5帳에서부터 8帳에 나타나는 候文体書簡文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本稿에서는 선행연구에서 卷十의 어휘적 성격이나 문장구조에 대하여 아직까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 혹은 잘못 해석된 부분을 수정하고, 현대 일본어와 국어번역을 일본어 본문과 문맥, 그리고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解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卷十의 자료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捷解新語』의 전체 改修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捷解新語』의 현대어 解讀에 있어 가장 타당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改修本の 부자연스러운 한글번역이 重刊本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改修本과 重刊本の 刊行時期가 그다지 멀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휘의 시대적 변천이라기보다 당시의 어휘로서도 부자연스러웠던 改修本の 직역에 가까운 한국어가 重刊本에서 수정되고 다듬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捷解新語』를 解讀함



에 있어 어느 한 쪽만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解讀할 경우, 잘못 해석될 여지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인 李太永(1997)에서는 重刊本의 한글번역이나 原文인 日本語를 고려하지 않은 채 改修本의 對譯 한글만을 근거로 현대어로 解讀하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本稿에서는 그러한 표현들을 수정하고 解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捷解新語』卷十에서는 「候」에 한해서 일본어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한국어 해석을 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本稿에서는 이러한 경우, 原刊本의 일본어 표현을 중심으로 해독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왜냐하면 『捷解新語』의 底本은 역시 原刊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改修本과 重刊本의 경우 그 편찬 시기가 그다지 멀지 않으나 중간본에서 개수본의 표현이 대부분 수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간본과 중간본의 한국어 부분을 참고하지 않고 개수본의 한국어 만에 의존하여 현대어 해독을 하는 것은 『捷解新語』의 원간본과 중간본의 改修 의도가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라 論하였다.

지금까지 『捷解新語』 연구는 두 가지 경향을 띤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제반 문법적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와 자료적 가치를 논하는 서지학적 관점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제는 이와 더불어 『捷解新語』의 올바른 현대어 解讀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생각한다. 『捷解新語』의 올바른 현대어 解讀이 완성되었을 때, 『捷解新語』 연구가 한층 완결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관점에서의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 【参考文献】

- 李太永(1997) 『譯註 捷解新語』 太學社
- 林昌奎(2007b) 「『捷解新語』の資料的価値」 『日本語学の研究と理解』, 어문학사.  
p.315-355
- (2007a) 「『捷解新語』の他動詞について」 『日本學報』 第70輯
- (2005) 「『捷解新語』のハングル翻訳について(その二)」 『日本語學研究』 第13輯
- (2004) 「『捷解新語』のハングル翻訳について」 『日本語學研究』 第8輯
- (2003c) 「自動詞「背く」에 대하여」 『日本語學研究』 第8輯
- (2003b) 「『捷解新語』における状態述語と共起する「を」について」  
『日本文化學報』
- (2003a) 「『捷解新語』における二重「を」構文について」 『日語日文学研究』  
44輯
- (1998c) 「『捷解新語』의 자동사「あう」와 共起하는 조사「を」에 대하여」  
『日語日文学研究』 32輯
- (1998a) 「『捷解新語』における「を」格の誤用について」 『月刊言語』 2.  
大修館書店
- 韓美卿(1995) 『捷解新語における敬語研究 I・II』 도서출판 박이정
- 梅田博之・林昌奎(2000) 「『捷解新語』의 使役構文」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月印 p.39-60
- 辻星児(1975) 「原刊「捷解新語」の朝鮮語について」 『国語国文』 44-2,  
京都大学国語学国文学研究室
- (1997) 『朝鮮史における『捷解新語』』 岡山大学文学部
- 中田祝夫編(1985) 『古語大辞典』、小学館
- 室町時代語辞典編集委員会(1985-1994) 『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小学館
-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刊(1973) 『三本対照捷解新語本文編』
-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刊(1973) 『三本対照捷解新語积文・解題編』
- 日本大辞典刊行会(1979-1981) 『日本国語大辞典』 縮刷版(全十卷)、小学館
- J.ロドリゲス著、土井忠生訳(1955) 『日本大文典』 三省堂
- 土井忠生、森田武他訳(1980) 『邦訳日葡辞書』、岩波書店

## 要 旨

本稿は従来の研究では研究対象から排除されてきた候文体書簡文である『捷解新語』卷十(五帳から八帳まで)につい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

司訳院における倭学書の白眉とも言うべき『捷解新語』の資料的重要さは言を俟たない。しかし、従来の研究では卷十の場合、候文体書簡文であることから、研究対象から排除されてきたのである。先行研究があるとしても李太永(1997)が唯一であるが、李太永(1997)においては原文である日本語文については考慮の外に置き、改修本の対訳のハングルだけに注目し、現代韓国語を解釈しており、不自然な表現などが少なくない。そこで本稿では、『捷解新語』が書かれたほぼ同時代の文献、すなわち『日葡辞書』『日本大文典』の他、多数の資料を参考にし、日本文及び、文の前後の状況までを考慮の対象とし、卷十の文面を繊細で且つ緻密に解読を試みたものである。

検討の結果であるが、『捷解新語』を解読するに当たって日・韓どちらかの一方だけの言語の立場から解読した場合、誤謬を犯しやすい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さらに、本稿においてはそうした先行研究の誤謬を修正し、且つ最も望ましい卷十の解読の方向性を提示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すなわち、『捷解新語』の底本である原刊本の日本語を軸にし、まず、原文の日本語を現代日本語に解読し、さらに改修本と重刊本の韓国語を考慮の対象にし、現代韓国語に解釈すべきであると論じた。また、日本語文と対訳の韓国語文の構造の違いが有る場合、特に日本文の直訳が韓国語として文法的ではない場合においてはまず、韓国語の文法的な表現に意識して解釈するのが妥当であると考えた。さらに改修本の編纂過程において生じた誤謬または不自然な表現は、原刊本の日本語の表現に基づき、現代韓国語に解釈すべきものであると論じた。

キーワード：捷解新語、卷十、候文体書簡文、誤謬、文面解読、日本語テキスト

투 고 : 2009. 5. 31  
1차 심사 : 2009. 6. 13  
2차 심사 : 2009. 6. 27